

# 서 평 지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도 서 명	정의란 무엇인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p>※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p> <p>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우리는 개별적인 삶이 아닌 근본적 관념에 관하여 논의해야 하는가? 어쩌서 마이클 샌델의 &lt;정의란 무엇인가&gt;가 이토록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가? 각자의 이익을 바라보는 관계가 가득한 사회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전, 우리는 사회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라는 공동체는 친근한 타자와의 공존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의 특성으로는 목적, 활동, 이해관계, 상호작용, 소속감, 조직, 질서 등이 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 속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이 충돌로 조직이 결사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질서는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는 법이 될 수도, 도덕이 될 수도 있다.</p> <p>어떤 질서가 좋은 질서(good order)인지, 즉 정의란 무엇인지(what's matter)에 관한 복지, 자유, 미덕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p> <p>복지를 중시하는 입장은 풍요를 바라보는 공리주의적 입장,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은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미덕을 중시하는 입장은 덕 윤리에 해당한다. 세 가지의 상이한 논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유해야 할까? 혹은 왜 도덕적 사유를 해야 할까?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딜레마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견해, 즉 doxa를 갖게 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원리(episteme)를 도출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충돌이 철학으로 가는 기폭제가 된다. 우리가 원리, 진리를 도출하는 과정을 플라톤식의 표현을 빌리면 혼의 눈의 전환(art of turning around)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굴 속에서 동굴 밖으로 나가 개안하는 과정에 빚댄 것이다. 우리는 변증법(dialecture)을 통해 혼의 눈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데 dialecture의 dia는 through의 의미를 갖고 lecture는 말, 즉 대화의 의미가 있다. 플라톤 동굴의 우화 속에서 이데아를 경험한 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돌아온 것 역시 말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에 관해, 특히 권리 측면에 논하고자 한다.</p> <p>먼저, 공리주의는 권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벤담의 최고 원칙은 공리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리를 증진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벤담이 쾌고가 인간의 통치권자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쾌고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하여 크게 2가지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 번째로, 관중들이 충분한 쾌락을 느낄 경우, 사자에게 기독교인을 던지는 행위에 관하여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즉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찝찝함, 거부감이라는 도덕적 감수성(moral sentiment)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이러한 벤담의 한계를 철저히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해소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밀이다. 밀은 벤담을 향한 변론으로써 첫 번째, 개성을 중시할 것을 주장한다. 밀은 관습을 순응하지 않고 저항할 것을 말하며 개성이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개성을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선호, 쾌락의 증가가 아니라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리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밀의 두 번째 변론에서도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밀은 질적 쾌락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벤담을 변론하고자 한다. 쾌락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과 질적으로 높은 쾌락으로 구별되며, 인간은 자연스럽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 ‘플라톤 읽기’와 ‘심슨 가족 보기’ 중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전자라고 대답한다. 왜 우리는 질적으로 낮은 쾌락, 만족을 느끼는 삶을 의욕 하지 않을까? 밀은 이에 관한 답변으로 자유를 향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다. 즉, 또다시 모순점을 보인 것이다. 우리의 행동 선택의 근거가 쾌락과 선호가 아닌 인간 존엄성이라 주장한 것이기에 공리주의적 사유를 벗어나고 만다.</p> <p>이러한 공리주의적 사유 속에서 권리는 정립될 수 있을까? 벤담의 경우, 개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한다. 공리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의 경우 복합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밀은 철저히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리 증진이 양립할 수 있으며 조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2가지 한계점을 마주한다. 먼저, 공리를 위한 권리 보장이기에 권리는 언제나 상황의 불모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시로서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독재 정권 속에서의 행복한 사회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례는 밀의 사유 속에서 존재 불가능한 사례이다. 밀은 개인의 발언권을 매우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리를 위한 발언권 존중을 통해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며 더 나은 진리로 향할 것을 주장했다. 밀의 『자유론』 제2장에 따르면 100명의 사람 중 1명의 의견만이 다를 때에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1명의 의견이 진리일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를 마주할 기회를 잃게 되고, 1명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재 믿는 진리를 더 강화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린 침묵하는 쪽보다 침묵시키는 쪽의 피해(고통)가 거지게 된다. 밀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권리를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결국 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두 번째 한계점은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밀의 사유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가변적이고 유연적이며 위태롭다.</p> <p>그렇다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권리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자유를 위한 토양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고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반대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 자본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말하는 자유시장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경제효율성을 위한 체제이고 자유시장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조에 관한 입장 역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한 체제라고 해서 원조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이 아니다. 원조를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았지만 이에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그것은 절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에게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어떠한 의문들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유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안락사, 장기거래, 합의에 의한 식인행위에 관하여 자유지상주의적 사유만으로 우리는 아무런 찝찝함과 거부감 없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들은 자유와 권리를 공리와 별개로 양립시키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한계가</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있다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낀다.</p> <p>앞서 논의한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관하여 칸트는 이들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경험적 합리성이 아니라 선형적 합리성으로 극복했다. 칸트는 인간을 자유계와 도덕계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경향성과 이성이 모두 내재한 존재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자유란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법칙, 즉 보편화 가능하고 타인을 한낱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뜻하는 autonomy는 auto와 nomos로 나눌 수 있는데 auto는 self의 의미를 갖고 nomos는 law의 의미를 갖기에 autonomy는 self-law giving의 의미를 지닌다. 경향성에 따르는, 즉 욕구·욕망·감정 등에 따르는 행위는 외부에 복종한 것이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인간이 경향성을 가진 존재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경향성을 압도하여 공리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이성이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p> <p>칸트는 단순히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립한’ 법칙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동기를 중시하고자 하는 칸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공리주의자에게 중요했던 쾌락을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의무의지, 다시 말하면 해야 한다는 동기를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닌, 쾌락은 그저 행위 결과의 부산물로서 존재해야 하고 행위는 철저히 이성으로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형적, 즉 a priori를 강조했는데, 이는 경험적인 것은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기에 그 이전에 존재하는 선형이라는 틀(form)로 사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순수이성으로 틀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인간은 물건 취급될 수 없고, 한낱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자기소유권을 주장하며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자유지상주의와 인간을 선호를 계산하기 위한 개별 행복으로서 수단화하는 공리주의자와 달리 칸트에게 권리란 이성에 의해 수립된 단단한 것이며 법제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p> <p>이후 샌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자유주의 진영과 공동체주의 진영 사이를 비교 대조하여 좋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와 자격 그리고 자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우선 자유주의 진영에서 칸트를 계승한 롤스를 제시한다. 롤스는 우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합의를 중시하는 데, 그러한 기본 입장 속에서 왜 법을 지켜야 하는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칸트는 이에 관하여 계약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롤스는 계약을 합의와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스스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자율성,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호혜성이 보장되어야 공정하다. 실생활, 즉 현실에서 두 가지 모두 보장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바로 합의의 도덕적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시 말하면 계약 사실이 계약 내용의 공정성,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 사이의 야구 카드 교환의 경우 형과 동생의 정보의 차이에 따라 형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 때의 계약은 자율성이 보장되었지만 호혜성에 어긋나므로 계약은 공정하지 않다.</p> <p>롤스는 이러한 계약 불공정성의 문제를 임의성의 문제라고 본다. 현실에서 각 개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자유의 수월성 등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자율과 오해가 모두 보장된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롤스는 이에 대하여 임의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을 임의성을 배제하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 이성적 인간이 결정한 것은 공정하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통해 도출된 분배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제 1원칙인</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 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언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는 원칙과 불평등을 허용하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할 때만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원칙이 도출된 것이다.</p> <p>롤스는 앞서 서술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불균형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무지의 베일과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자유 경쟁 시장과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자율경쟁 시장은 참가 기회는 동등성을 보장했지만, 출발점이라는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능력주의의 경우 출발선의 공정성은 보장했으나 롤스에 따르면 임의적 요소인 능력의 동등성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롤스는 분배의 대상에서 임의적 요소인 것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정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p> <p>롤스는 능력주의를 비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발생한 부를 가져갈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격이란 각 사회가 추구하는 바와 같은 가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임의적인 것이기에 분배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은 다른 사람들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가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도덕적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가 차등의 원칙의 제도를 구현하는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기대를 할 권리 때문이다. 그가 다른 선수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더 많이 노력했다는 이유의 자격이 아닌 권리를 갖기 때문인 것이다.</p> <p>반면 공동체주의자 진영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리보다 자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텔로스 (목적, 본질) 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는 지는 그 사람에게 마땅한 몫, 즉 명예와 포상을 분배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데 이 자격은 목적을 얼마나 잘 실현했는가에 좌우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의 대상은 명예와 포상 그리고 자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바탕으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대학의 텔로스에 따라 분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만약 대학의 목적이 학업 성취라면, 학업 성취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대학의 목적이 사회 발전이라면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조화 역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정책보다 좋음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그렇다면 정치의 텔로스는 무엇일까? 정치의 텔로스는 시간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습관을 통해 형성 가능한 개인의 미덕을 명예와 포상의 분배를 통해 키워야 한다. 이때 왜 시민의 미덕은 공동체 내에서 키워져야 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존재, 즉 logos적 존재이다. 인간은 logos를 통해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는 데 logos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선인 행복 역시 이와 관련된다. 행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으로서 아름다움과 알맞음 사이의 적절함을 찾으려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렇듯 자신의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알맞은 때, 알맞은 방식으로, 알맞은 대상에게 행하여 한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의 실현을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 보고 중용을 중시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다.</p> <p>앞서 알아본 칸트를 계승한 롤스가 속한 자유주의 진영, 아리스토텔레스가 속한 공동체주의 진영이 자격과 권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점이다. 먼저 공동체주의 진영은 자아를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보았다. 이는 자아를 서사적 자아로</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보는 것인데 서사적 자아란 공동체로부터 의무, 성향, 정체성을 부여받아 형성된 자아이다.</p> <p>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매킨타이어가 있다. 매킨타이어는 이야기를 매우 중시한다. 역사성과 공동체로 인해 사회적 정체성을 지니게 됨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주의자들은 과거의 잘못에 사과할 의무가 있는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공동체적 정체성에 의한 연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주의 진영은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아를 주장하며 도덕적 개인주의를 말한다. 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자신이 초래한, 즉 자신이 선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합법 정부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말한 존 로크, 스스로 입법하고 스스로 의무 지는 자율성(autonomy)을 말한 칸트 그리고 존 롤스가 있다. 비자발적 상황 속 선택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성을 배제한 선택이 공정함을 말한 존 롤스에게 미덕은 권리보다 앞섰던 공동체주의 미덕과 달리 무지의 베일로 새겨진 원칙 속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보았다. 분배 정의 역시 미덕보다 앞서, 즉 자격보다 앞서 무지의 베일 속에서 확립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가지 진영을 각각 문제점을 지니는 데 먼저 공동체주의 진영은 역사성의 문제, 상대주의의 문제가 있다. 좋음을 각 공동체가 선정할 수 있다면 극단적일 경우 네오 나치즘이 출현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분별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 셉탈의 공동체주의 진영에 더 가깝다. 셉탈은 공동체주의 진영과 마찬가지로 선이 권리에 앞서며 정의는 중립적일 수 없고 중립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지만, 전통적 미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에 비판적 사람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이어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연대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민주적 시민 의식과 공화주의적 덕성 함양을 요청했다.</p> <p>우리는 &lt;정의란 무엇인가&gt;, 즉 마이클 샌델의 입을 통해 공리주의부터 공동체주의까지 여러 사상가의 고유 사상을 배웠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이 읽고 있는 문장과 의도가 마이클 샌델의 견해인지, 해당 사상가의 사상인지 구분하며 읽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형성한 사고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각 장을 읽으며, 지지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본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권위에 좌우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정한 입장을 지지하는 까닭은 그들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p> <p>이러한 각 개인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모순되게도 한계의 극복 방안 역시 &lt;정의란 무엇인가&gt;에 담겨있다. 크게 밀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명의 사상을 바탕으로 방안을 찾아보자. 밀의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공리주의 사상은 정치, 개인의 삶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때 필연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기에 채택하였다. 밀은 더 나은 진리로 다가가기 위해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logos적 존재로서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을 말을 통해 분별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바로 우리는 말, 즉 토론을 통해 편향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각 개인이 말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나누는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고려된다면 이는 모두의 편향된 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토론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지식 차이,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점에서 한 권의 책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점검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수동적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라 주체적 인간으로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p> <p>이렇듯 토론은 책 한 권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정의’ 그리고 ‘사회’의 경우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흔히 유교 국가라 불리어왔다. 하지만 서구의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하였다. 결국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국가 역시 다스리는 주체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이러한 성향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회 속에서 대화, 토론의 가치는 매우 높아진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엇갈린 시선이 마주 보는 것부터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말(logos)을 통해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는 존재이기에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추구할 가치를 찾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p> <p>사회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회 윤리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윤리는 허무맹랑한,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논하고 탐구하는 것은 곧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듯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의와 사회 윤리에 관한 토론은 사회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 윤리의 역할을 평소에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책을 매개로 하여 많은 사람이 이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황 역시 말, 즉 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p> <p>진정한 의미의 토론을 위해서는 밀의 &lt;자유론&gt; 2장에서 언급된 자세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밀은 토론이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견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우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토론에 임할 때 참여자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p> <p>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GB(Great Books) 프로젝트 등의 시도는 출현하였지만, 아직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토론과 같은 경쟁적 성격의 토론 방식이 만연하다. 또한 진정한 토론의 장에서 다수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토론의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감정’을 중요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적 형식 토론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향한 공격에 대한 반발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은 유정적 존재이기에, 감정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정체성에 포함된다. 감정의 중요성은 고전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와 책 속에서 예시로 제기된 금융 구제에 관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구체적인 감정으로서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서 이데아를 경험한 자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살해당할 위기를 마주하면서도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하게 된 근원인 연민, 금융 구제에 관하여 당시 사람들이 느낀 공분을 말할 수 있다.</p> <p>하지만 우리의 사유 속에서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감정을 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감정은 가변적이고 우연한 것이기에 우리 사유의 토양으로 삼는다면 정의와 사회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토론 속에서 흔들리고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토론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칸트의 단단한 그릇과 같은 사유에 기대야 한다. 토론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피력하기 위해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이 수립</p>			

서평 제목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정의	참가번호	2023-32
<p>한 법칙, 토론의 경우 토론 수칙을 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주체성이 보장을 통해 경쟁적 토론이 아닌 더 나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적 토론의 형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p> <p>더 나아가 토론은 개별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론화된 토론처럼 단순히 정치적 의도를 피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토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토의 정치는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의 교류에 초점을 둔다. 비공식적 차원의 의견이 새로운 문제로서 공론화되는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다원주의적 잠재력 개화와 서로의 연대성 보존을 이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토의 정치 속에서 시민은 각자의 신념을 통해 토론장에서 회의하되, 더 나은 논증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릴 줄 아는 태도가 마련되어 더 나은 진리를 향한 토론 방식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토의 정치로 인한 사회에 관한 소속감과 우리의 의견이 법제화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란 믿음이 시민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좋은 삶을 위한 의견이 수립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우리는 개인적 차원부터 사회적 차원까지 토론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마이클 샌델의 &lt;정의란 무엇인가&gt;는 정의에 관한 다양한 사상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토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책으로써 사회적 존재인 모든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p>			